

진화론의 문제점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회장 이광원 장로)

고등학교용 '지구과학 I' 교과서 개정 청원 "동일 과정설에 관한 기술은 수정되어야 한다"

동일 과정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오류로 판명된 것으로 심각한 문제 진화론의 한 부분인 '동일 과정설'에 대한 수정 청원서를 교육부 등에 제출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사)교진추는 12월 24일(목)에 오랜 연대 및 지적학적 진화론의 한 부분인 '동일 과정설'에 대한 수정 청원서를 교육부 등에 제출했다. (청원서 제목 : "동일 과정설에 관한 기술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림 1. 동일과정설에 대한 기술은 수정되어야 한다



[출처: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그림 2. 카지흐스탄의 차린 협곡(Charyn Canyon)의 암석층



[출처: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사)교진추, 회장 이광원)는 12월 24일(목)에 "동일 과정설에 관한 기술은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교육부 등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현행 '지구과학 I' 교과서(Y 발행사)에

기술되어 있는 동일 과정설에 관한 내용 중의 일부이다.

"동일 과정의 법칙: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면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 수 있다는 법칙이다."

과연,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처럼 '동일 과정설'을 법칙이나 원리로 명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술 내용과 방식으로 동일 과정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은 동일 과정설을 마치 오류가 없는 과학적 법칙처럼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과학교육의 목적은 과학지식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식 역량의 증진과 합리적이고,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사고력의 배양 및 과학적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술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동일 과정설(同一過程論)은 오늘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선험적 가정으로서 현행 '지구과학 I' 교과서에서 단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오류로 판명이 된 것이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 과학'의 학습 요소로 '동일 과정설'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동일 과정의 법칙 또는 원리'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오용하고 단정적으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교진추는 과학 기술 발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지진과 과학 영역인 진화론과 동일 과정설 등과 같은 가설의 교과서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증명된 법칙처럼 기술하는 교과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교과서 청원을 통해 교육부와 기존 학계에 여러 차례 교과서 내의 진화론 기술 오류 개정 청원을 해오고 있다.

(사)교진추가 지구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동일 과정설'에 대해 청원하면서 "지적학적 진화론의 한 부분인 동일 과정설 지지자들도 본회 청원서의 주장

논리와 근거 논문을 살펴본다면 본회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사)교진추는 청원의 배경으로서 "동일 과정설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련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계속 잘못된 기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용어와 내용 및 기술 방식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며, 과학적 사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전 정신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동일 과정설의 용어와 오류로 판명된 내용을 수정하고, 단정적인 기술 방식을 지양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격변설(激變論)이나 신(新)격변설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술해 주기를 청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구과학 I' 교과서 내 '동일 과정설'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한 삭제해줄 것과 그것이 어렵다면, 청원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교진추가 청원의 근거로 내세운 학문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일 과정설은 제임스 허턴(James Hutton, 1726-1797)이 조금 더 폭넓게 주장한 이후 라이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들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오류로 판명된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로, 동일 과정설은 '후진 공정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학습 요소에서도 '동일과정설'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이 법칙이라는 용어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오용하고 있다.

셋째로, 동일 과정설은 이미 오늘날 관찰할 수 있는 지역적인 지질 현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거나, 전 지구적인 지질 기록과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는 수많은 지질학적 증거들로 말미암아 그 문제점과 한계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

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행 교과서들은 기술하고 있지 않다.

넷째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학습 요소로 '격변설'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외 지구과학계를 비롯한 여러 학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동일 과정설의 한계성과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지구 역사에 대해 통합적 관점으로 제기된 격변설이나 신격변설에 대해 현행 교과서에서는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로, 현행 교과서들은 오늘날 형성되고 있지 않거나 전 지구적인 규모와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질 기록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지질 기록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술들(예, 동일 과정설 대 (신)격변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비교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사)교진추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주요 학문적인 근거와 함께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속 조건의 수보다 변수가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는 어떤 패러다임 또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신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패러다임이나 모델 등에 따른 해석의 차이, 그리고 기원 및 역사 과학 영역에 대한 '자연주의적 철학'도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

다. 왜냐하면 폐쇄적인 과학적 관점이나 자연주의적 철학을 넘어서서 통합적으로 관찰 사실들을 볼 수 있도록 시정할 때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함양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미래를 펼쳐나갈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과서 개정을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교과서의 지진과 과학 영역의 내용을 마치 검증된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오류를 학문적 논의를 통해 계속 해서 시정되도록 청원할 것이다."라는 앞으로의 입장으로 표명했다.

(사)교진추는 이번 제2차 청원에 이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지시학의 법칙'(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칙이라고 불릴 수 없음) 중 진화론에 바탕을 둔 '동물군 또는 생물군 천이설'에 대한 다음 청원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마치 고신설 과학적으로 불변의 사실처럼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기원 또는 역사 과학과 관련된 기술 내용의 문제점과 한계성을 드러내고 이 땅의 교과서가 바르게 바뀌도록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청원서 전문을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면 (사)교진추의 홈페이지(<http://str.or.kr>)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간 안내

책읽는 사자의 신앙의 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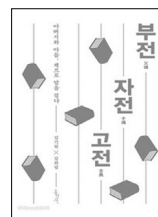


청년의 3대 현실 고민 '연애, 신앙, 직장'에 대한 성경적 통찰과 실제적 조언. 스스로를 '예수자, 독서자, 작가'라고 소개하는 저자 책읽는사자는 네이버 포스트 4.8만 구독자의 포스트 에디터이며, 그의 영상을 기다리는 1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다. 그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세상에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력조회수 550만(2020년 12월 기준)이 넘는 그의 영상을 통해 신앙과 세상 가치 사이에서 흔들리며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복음적 가이드라인을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다. 이 책은 영상으로 다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와 저자가 실제로 청년들에게서 받은 수많은 이메일과 댓글 내용을 참고로 그들의 은밀한 고민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담겼다.

저자 : 책읽는사자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0-12-21 | (140*200)mm 296p | 판매가 : 15,000원

부전 자전 고전



아버지와 아들이 편지로 주고받은 신학과 철학의 사유. 세대 간의 단절이 깊은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이 책을 읽고 말을 건다. 그것도 편지라는 형식으로. 종교철학을 전공하고 목사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버지 김기현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 김희림은 동서양 고전 가운데 스무 권을 선정하여 '존재, 타자, 폭력, 국가, 정의, 사랑, 진리, 자유, 세상, 학문'과 같은 신학·철학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지상(紙上) 토론을 벌인다. 첫 책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백서》를 펼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한 뒤 칼 바르트의 《로마서》를 통해 '타자'를 들여다본다. '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는 예수를 벗어난 고전인 구약성경(하박국)과 토머스 홉스의 《레비아던》을 등장시킨다.

저자 : 아버지 김기현 | 아들 김희림 | 출판사 : 홍성사

발행일 : 2020-11-27 | (140*215)mm 312p | 판매가 : 16,000원

보다 예배다운 예배를 꿈꾸다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이 선포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시간이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요즘의 현실은 성도인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예배 모임'이 지금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격정적이나 비탄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지금의 시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원치 않는 현실은 역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기회가 될 수도 된다. '예배다운 예배로의 갱신'이라는 거룩한 기회 말이다.

저자 : 양영호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11-30 | (148*210)mm 200p | 판매가 : 12,000원

청교도, 사상과 경건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교훈을 얻어오른다. 성경의 안목에서 인간 역사를 재해석하고 바라보아야만 참된 정의와 진리가 무엇 인가를 분별해 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 성경 어느 쪽을 읽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주님이 실제의 통치자요, 주관자로 배편에 계신다. 주님은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은밀하게 진행시키는 분이시다(요 5:30).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들을 영원한 진리로 안배를 받는다. 이성만을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찾아낼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안목에만 빠져있기 때문이다.

저자 : 김재성 | 출판사 : 세움북스

발행일 : 2020-12-20 | (152*225)mm 612p | 판매가 : 32,000원

긴급진단

이연경 변호사 //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 ⑥

5. 전담기관 일원화의 문제 - 무소불위의 '인권위'

현행 차별금지법률이, 장애인에 보건복지부, 노동영역은 고용노동부, 남성과 여성은 여성가족부, 외국인인 법무부 등 차별영역 및 대상별로 관장부서를 달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과 '인권위안'은 모든 차별을 판단하는 권한을 '인권위'로 일원화하고 이를 모든 국가기관 우위에 두고 있다. 실상 '인권위'의 지역확대, 권한강화를 도모하는 셈이다. 지금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는 '인권위' 결정에도 정부기관등은 극도로 몸을 사린다. '인권위' 비상임위원 제임 당시, 심지어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지 않기 위해 국가기관이 사안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진정당한 공무원을 징계부터 해버리는 사례도 종종 보였다. 차체에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의 전 생활영역에 미치는 각종 사안 분쟁에도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해 이렇듯 권고를 뛰어넘는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통령보다도 나올지 모른다. 견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 수 있으니 말이다.

6. 결론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의 기반을 만들려는 사회의 요구를 누군들 거부하겠는가. 일상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차별관행을 가시화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엔 우리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당장 법부터 만들어 차별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발상은 분명 부

작용이 크고 역차별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지상에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 천국은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법률을 제정해 모든 차별분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무척 단순한 환상이다. 오히려,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무조건 규제부터 강행하려는 '입법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 실형 법을 제정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지,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사회적 파장은 어떤지 등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법' 사이의 모순과 충돌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시스템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정의당'과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이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법,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그 이름대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개별적 권리들로 토막 친 이 법엔 공동체 모든 관계들마다 낯선 칼이 겹겹이 주기 때문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 주장에만 급급한 '민인의 민연'에 대한 '투쟁사회'로 전락해도 좋단 말인가. '정의당'과 '인권위안' 모두 독소조항이 사방에 널려있는데 차별을 없앤다니 좋다고 환호할 뿐, 법안의 구체적인 실상은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요사이 법의 제정과 개정이 지나치게 '갑상적', '투쟁적'이다. 민주주의

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낸다. 중요 이슈의 합의까지 반드시 속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법'이란 형식만 갖추어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어떤 것도 허용되는 세상인 듯 보인다.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차리리, 법 이전에 '차별'에 관한 도덕적 논의부터 활발해져야 한다. 개인적 차원의 도덕이 나쁜데 공중의 도덕이 좋은 나라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편없이 병들어 버린 '도덕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적 삶에 사사건건 개입할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복잡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 법률에 의해 개인의 이기심이나 차별 같은 권력을 제거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말이다. 그러나 그 법률은 그것이 억누르려 했던 악을 오히려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가 획일적인 '차별시정'이란 이름으로 진정한 개개인의 인성을 억누를 위험에 직면했다. 사실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국가권력의 강력한 엔진'의 의해 달성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현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충분한 숙의기간'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다. 유권자들의 진지하고 사려 깊은 논의 위에 끊임없는 검토를 더하여 시민적 담론을 형성하고, 이에 기반을 둔 '공론화'를 충분히 가진 후라도 모두 어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